

배포일시	2021. 5. 31.(월) 10:00 (총 2매)		보도시점	즉시
담당부서	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	담당자	과장 나인묵 사무관 김소형	전화번호 02-2181-0410 02-2181-0720

## 폭염 영향과 자외선지수까지 '날씨알리미 앱'이 알려드립니다

- 기상청, 원하는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, 자외선지수 알림서비스 시작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여름철을 대비하여 5월 31일(월)부터 '날씨알리미 앱'을 통해 폭염영향예보와 자외선지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.
  - 알림서비스는 현재 위치와 직접 선택한 관심지역의 영향예보나 생활기상지수 정보가 발표되면 알림 정보를 받을 수 있다.
  - 그동안 방재담당자와 취약계층 관리자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나,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로 날씨알리미 앱을 설치한 국민 누구나 맞춤형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다.
  
- △폭염영향예보는 '보건 분야 일반인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'일 경우, △자외선지수는 '매우 높음' 또는 '위험' 예상 시 하루 전에 미리 제공한다.
  - 수신 방법은 날씨알리미 앱 알림 설정 메뉴(영향예보 수신, 생활기상지수 수신)에서 내가 원하는 동네(현재 위치 포함 최대 3개)와 수신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.



[그림 1] 영향예보, 생활기상지수 수신 설정 및 알림서비스 메시지 예시

□ 특히, 간략한 텍스트 위주의 기존 문자서비스와 달리, 위험 수준별 상세 대응 요령도 함께 제공되어 누구나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.

○ 또한, 상세정보(그래픽 분포도, 전국 현황 등)와 함께 누리집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날씨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.

□ 이번 영향예보와 생활기상정보의 날씨알리미 앱 알림서비스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져, 국민의 생활안전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아울러, 계절 특성에 맞추어 겨울철에는 ‘한파영향예보’와 ‘동파가능지수’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앞으로도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다양한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,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말했다.